



※ '돌직구'는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박인비(왼쪽에서 3번째)가 16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로레나오초아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자 유소연(왼쪽에서 2번째)이 샴페인을 더뜨려 축하해주고 있다. 멕시코시티(멕시코) | AP뉴시스

## 5승 박인비, 이젠 최후의 승부

19일 LPGA 마지막 대회 'CME그룹 챔피언십'...리디아고와 타이틀 경쟁

우승팬 세계랭킹 1위 탈환·올해의 선수  
1·2위 점전 상금왕·최저타수상도 걸판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기록제조기’ 리디아 고(18·리디아고)는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박인비가 16일(한국시간) 멕시코에서 끝난 로레나오초아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0만달러)에서 시즌 5승째를 챙기며 리디아 고와의 마지막 점점승부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인비와 리디아 고의 치열한 경쟁은 올 시즌 내내 이어졌다. 세계랭킹 1위 싸움을 시작으로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 그리고 레이스 투 더 CME 글로벌까지 모든 부문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남은 대회는 단 하나. 19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골프장에서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서 최종 승자가 탄생하게 된다.

가장 치열한 부문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자리다. 올 들어서만 4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마지막까지 예측불허하다. 박인비는 2월 초 자리를 내줬다가 6월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10월 빼앗겼다. 박인비에게 여왕의 자리를 빼앗아간 주인공은 리디아 고다. 마지막 투어챔피언십에서 박인비가 우승하면 여왕 탈환에 성공하고, 리디아 고가 우승하면 2015년 골프여왕으로 남게 된다.

| 리디아고 vs 박인비 기록 비교(16일 현재) |        |              |
|---------------------------|--------|--------------|
| 리디아고                      | 부문     | 박인비          |
| 12.55(1위)                 | 세계랭킹   | 12.04(2위)    |
| 276(1위)                   | 올해의 선수 | 273(2위)      |
| 275만8417달러(1위)            | 상금랭킹   | 257만96달러(2위) |
| 69.449(2위)                | 베어트로피  | 69.433(1위)   |
| 4913(1위)                  | CME포인트 | 4444(2위)     |

| 박인비 2015년 우승 일지(현지 날짜 기준) |                 |                                    |
|---------------------------|-----------------|------------------------------------|
| 날짜                        | 대회명             | 특이사항(리디아고 순위)                      |
| 3.8                       | HSBC위민스 챔피언십    | 랭킹 1~3위 맞대결서 우승(2위)                |
| 5.3                       | 노스 텍사스 스프링스     | 시즌 2승(공동 41위)                      |
| 6.14                      | KPMG위민스 PGA챔피언십 | 대회 3연패, 시즌 첫 메이저 우승(프로 데뷔 처음 컷 탈락) |
| 8.2                       | 브리티시여자오픈        | 커리어그랜드슬램 달성(공동 3위)                 |
| 11.15                     | 로레나오초아인비테이셔널    | 시즌 5승(불참)                          |

올해의 선수 부문도 점전이다. 1위 리디아고(276점)와 2위 박인비(273점)의 격차는 단 3점. 투어챔피언십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든가에 따라 트로피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상금왕과 베어트로피 역시 마찬가지다. 상금랭킹에선 리디아 고가 조금 더 여유 있다.

## LPGA vs KLPGA...누가 더 세나?

컴퓨터 퍼트를 자랑하는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화끈한 장타로 무장한 박성현(22·넵스)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27일 부산의 베이스айд 골프클럽에서 개최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자존심을 건 한 판승부 ‘챔피언스 트로피’에 출전할 선수들이 확정됐다. LPGA투어 대표로는 박인비와 신인왕을 확정지은 김세영(22·미래에셋), 유

소연(25·하나금융그룹), 김효주(20·롯데) 등 12명이 나선다. KLPGA 대표로는 박성현과 이정민(23·비씨카드),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등 12명이다. 어깨 부상 중인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같은 기간 일본에서 열리는 리코컵 투어챔피언십에 출전한다. 국내에서 LPGA를 대표하는 한국 선수와 KLPGA 대표주자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방식은 1,2라운드 포볼과 포섬

27일 ‘챔피언스 트로피’ 한판승부  
박인비 vs 박성현 등 별들의 전쟁

(각 3경기)을 치르고, 3라운드에서 싱글 매치 플레이를 펼친다.

▲출전 선수 명단

〈LPGA투어〉 박인비 김세영 유소연 김효주 장하나 최은정 이미향 이미림 이일희 신지은 백규정 박희영  
〈KLPGA투어〉 박성현 이정민 조윤지 고진영 배선주 김민선 김보경 서연정 김해림 김지현 안신애 박결

주영로 기자

## 폴찌후보서 다크호스...삼성생명의 극적 반전

2연패후 3연승...필드골 성공률 43%로 1임근배 신임감독 “팀 워크 훈련의 결과”



삼성생명은 ‘KDB생명 2015~2016 여자프로농구’ 개막 2연패 후 3연승을 거뒀다. 경기 내용도 극과 극이었다. 2연패하는 동안 필드골 성공률이 32%에 그쳤다. 그러나 3연승하는 동안 필드골 성공률은 43%로 크게 올랐다. 또 2연패하는 동안 평균 64.5점을 내줬지만, 3연승을 거두면서는 평균 실점이 53.7점에 불과했다.

5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삼성생명을 바



라보는 시선도 극명하게 갈렸다. 개막 직후 삼성생명은 강력한 폴찌 후보로 지목됐다. 임근배(사진) 신임 감독이 시도한 변화가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3연승을 달리기 시작이 달라졌다. 나머지 5팀이 삼성생명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1위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도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감독은 팀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를 팀워크로 꼽았다. 그는 “비 시즌에

팀워크를 강조했다. 훈련장에 ‘희생 없는 승리 없고, 노력 없는 성공 없다’라는 글귀를 써 놓았다. 실수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경기에 뛰는 선수는 벤치에 앉아서 응원하는 선수들을 생각하도록 했다. 팀워크가 강력한 수비를 펼치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막 직후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연패로 이어졌다. 그런데 선수들이 믿고 따라준 덕분에 3연승할 수 있었다.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매 경기를 차분하게 치르려 한다. 승패도 중요하지만, 팀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다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최재경 기자 hk7048@donga.com